금주의 법구—〈보왕삼매론〉
내 뜻대로 순종해 주기를 바라지 말라.
순종해 주면 마음이 교만해지나니
맞지 않는 사람들로 숲을 삼아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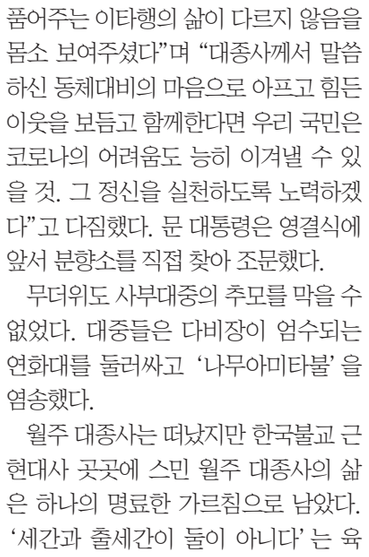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351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5년 음력 6월 26일) 2021년 8월 4일 수요일



서방의 연꽃, 사바의 연등 아기부처님의 일곱 걸음을 걷게 한 연꽃에는 많은 의미와 설법이 깃들어 있다. 연꽃만 바라보고 있어도 한걸음 걷는 것이다. 서방정토에서는 만물이 연꽃에서 태어난다. 사바에서 서방을 꿈꾸며 사는 우리에게 연꽃이 핀 오늘은 서방에 태어난 날이다. 서방에서 날려 온 꽃씨들이 법당 마당에 꽃을 피웠다. 그리고 서방에서 다시 보게 될 연꽃 뒤로는 사바의 연등이 걸려있다. 연꽃이 핀 오늘, 서방과 사바가 멀지 않다. **글 · 사진=박재완 기자**

시대 스승 월주 대종사 적멸의 길로 나아가다

7월 26일 영결식·다비식
불교계 대표 지도자 운집
각계 인사들 조문 이어져
국내외 조전 이례적 규모
49재 매주 수요일 봉행돼



조계종 제17 · 28대 총무원장이자 불교계 안팎으로 숱한 족적을 남긴 태공당 월주 대종사의 마지막 길에는 생전 대종사의 가르침을 기억하는 대중들이 운집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조문 및 영결식 참석인원 최소화 방침을 세웠지만, 각계 인사들의 조문이 줄을 이었고 국내외를 넘나드는 추모사와 조전도 이례적인 규모였다.

태공당 월주 대종사의 영결식과 다비식은 7월 26일 김제 금산사 처영문화기념관과 금산사 다비장에서 종단장으로 엄수됐다. 조계종 총무원장이자 태공당 월주대종사 종단장 장의위원장 원행 스님의 영결사에 이어, 종정예하 진제 법원 대종사와 원로회의 의장 수봉 세민 대종사, 중앙종회 의장 정문 스님, 교구본사주지협의회장 경우 스님, 전국선원수좌회 공동대표 일오 스님 등 종단 주요스님들과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종단 지도자 등 불교계를 대표하는 스님들이 추모사와 조사로써 애도의 뜻을 밝혔다.

생전 '깨달음의 사회회'를 주창한 뒤 종교계 대사회 활동을 이끈 만큼, 이례적으로 불교계 외부 인사들의 추모행렬도 눈길을 끌었다. 천주교 광주대교구장 김희중 대주교를 비롯한 이웃종교 수장들은 물론, 문재인 대통령과 이원욱 국회 정각회장을 비롯한 정관계 인사들이 앞다퉈 추모의 뜻을 밝혔다. 정세균 前 국무총리와 이낙연 前 국무총리, 윤석열 전 검찰총장, 최재형 前 감사원장, 이재명 경기지사, 추미애 前 법무부 장관 등 대선주자들의 조문도 이어졌다.

장의위원장 원행 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은 영결사를 통해 "오늘 저는 저의 은사이자 한국불교의 큰 스승이신 태공당 월주 대종사를 적요의 세계로 보내드려야 한다"며 "1961년 금산사 도량에 주지로 부임한 후 60여 년간 손수 어루만지시던 돌덩이와 초목은 지금도 제자리인데 대종사는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라며 스승을 떠나보내는 비통함을 전했다.

원행 스님은 "월주 대종사는 일평생 우리 종단의 혁신과 발전을 위해 정진했던 '종문(宗門)의 사표(師表)'였기에 남기신 자취가 너무도 크고 무겁게 다가온다"며 "매사 공심을 앞세우며 종단 발전을 위해 헌신했던 그 삶은 종단사에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라고 추모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전을 통해 "한국불교와 나라의 큰 어른이신 월주 대종사께서는 구도의 삶과 이웃의 고통을 품어주는 이타행의 삶이 다르지 않음을 몸소 보여주셨다"며 "대종사께서 말씀하신 동체대비의 마음으로 아프고 힘든 이웃을 보듬고 함께한다면 우리 국민은 코로나의 어려움도 능히 이겨낼 수 있을 것. 그 정신을 실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영결식에 앞서 분향소를 직접 찾아 조문했다.

무더위도 사부대중의 추모를 막을 수 없었다. 대중들은 다비장이 엄수되는 연화대를 둘러싸고 '나무아미타불'을 염송했다.

월주 대종사는 떠났지만 한국불교 근현대사 곳곳에 스민 월주 대종사의 삶은 하나의 명료한 가르침으로 남았다. '세간과 출세간이 둘이 아니다'는 육조혜능 선사의 가르침 그대로를 삶으로 증명했고, 이를 임종게로 남긴 월주 대종사의 삶은 마지막까지 후학들에게 큰 울림을 전했다.

월주 대종사의 49재는 7월 27일 초재를 시작으로 매주 수요일 7차례 이어진다. 2재는 8월 4일 오전 10시 완주 송광사, 3재는 8월 11일 오전 10시 남원 실상사, 4재는 8월 18일 오전 10시 군산 은적사, 5재는 8월 25일 오전 10시 서울 조계사, 6재는 9월 1일 오전 10시 서울 영화사, 49재는 9월 8일 오전 10시 김제 금산사에서 봉행된다.

송지희 기자

〈추모특집 4 · 5면〉

여름휴가 관계로 다음주 신문 쉽니다.

'원효 화쟁' 전문 연구소 설립된다

영산대, 국내 최초 '화쟁연구소' 설립 · 운영

박태원교수, 소장으로 취임
올해 하반기부터 활동 시작
화쟁+동 · 서양철학 통섭한
'화쟁의 인문학' 구현에 초점
'원효전서' 英譯사업도 추진
오는 10·12월 학술대회 예정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원효 스님이 주창한 '화쟁사상'을 통섭적 연구를 통해 '화쟁 인문학'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전문 연구기관이 설립된다.

영산대는 올해 하반기부터 '화쟁 인문학' 구현을 위한 전문 연구기관인 '화쟁연구소'를 설립하고 본격적 활동에 들어간다.

영산대 화쟁연구소의 초대 소장으로는 박태원 울산대 철학과 교수가 취임한다. 올해 상반기 정년을 맞은 박 교수는 울산대에서 영산대로 자리를 옮겨 연구를 총괄 진행한다. 박 교수는 국내 원효 전문가 중 한 명으로 지난 2018년 울산대에 '원효학토대연구소'를 설립하고 〈원효 전서〉를 발행하는 등 원효 스님 관련 연구를 꾸준히 진행해 왔다.

그간 원효 스님 관련 연구기관은 울산대 원효학토대연구소를 비롯해 분황사의 원효학연구원, 심재열 박사가 설립한 원효사상연구소가 있었지만, 원효 스님의 주요 사상인 '화쟁'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기관이 설립되는 것은 영산대 화쟁연구소가 처음이다.

영산대 화쟁연구소는 원효 스님의 화쟁사상과 동 · 서양 철학을 근간으로 '화쟁학'과 '화쟁 인문학' 구현을 목표로 삼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새로운 '차이들의 배타적 분쟁'을 해소 · 화해시키는 한국적 자생 인문학을 만들겠다"는 것이 박 교수의 계획이다.

이를 위해 화쟁연구소는 오는 10, 12월에 두 차례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화쟁 인문학의 전망과 연구방법론'을 주제로 열리는 두 번의 학술대회에서는 불교를 넘어 동 · 서양철학에서 화쟁 사상과 접점을 모색하는 연구 논문들이 발표된다.

10월에 열리는 학술대회에서는 기조발제로 '화쟁학의 의미와 전망- 붓다 · 불교 · 원효와 화쟁 인문학(박태원)'이 발표되며 '프랑스 차이담론의 화쟁학적 탐구(안은희)', '초기불교의 화쟁학적 탐구(우동필)', '대승불교의 화쟁학적 탐구(김현구)', '만해의 화쟁학적 탐구(이선이)'가 각각 발표된다.

12월에 개최되는 2차 학술대회에서는 '니체철학의 화쟁학적 탐구(정현철)', '한국사회 차이 쟁론과 화쟁학적 탐구-성 · 세대 · 지역 · 이념 · 남북 · 인종 등(이혁주)', '선불교의 화쟁학적 탐구(마해륜)', '화엄철학의 화쟁학적 탐구-화쟁의 문화콘텐츠를 전망하며(최원섭)', '만해 연구의 연구사적 검토와 화쟁학적 전망(김진병)'이 소개된다.

박 교수는 "한반도 전통지성의 거봉(巨峯) 원효 스님은 '차이들의 열린 화해'(通攝)를 위한 화쟁의 통찰을 정밀하게 펼치고 있다. 원효가 천명하는 '통섭적 화쟁'은 차이 갈등문제를 풀어가려는 한반도 인문 지성의 탁월한 성취"라며 "화쟁연구소는 원효의 통섭적 화쟁에 관한 통찰을 과거와 현재의 동 · 서양 인문 지성의 모든 영역과 연결 · 탐구함으로써, '지금 여기'의 차이 갈등문제에 대처하는 '화쟁의 보편인문학'을 수립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화쟁 인문학'의 구현을 통해 연구소는 '화쟁 아너 소사이어티(Honor Society)' 창설도 목표로 삼고 있다. '화쟁 아너 소사이어티'는 한국사회의 화쟁에 필요한 담론의 장을 제공해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종교 등의 정책 수립에 기여하는 일종의 공동체다.

박 교수는 "향후 창설될 '화쟁 아너 소사이어티'를 한국사회의 공신력 있는 지식 가치 실천의 공동체로 만들 계획"이라며 "전국 규모의 오피니언 리더 소사이어티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영산대 화쟁연구소는 △〈원효 전서〉 영역(英譯) 사업 △원효학 수립 △화쟁 인문학 수립 위한 학술지 발간 및 프로그램 개발 · 보급 △화쟁 인문학 전문가 양성 · 활용 등의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박 교수는 "토대연구사업으로 번역이 완료된 〈원효 전서〉는 해석학적 번역이기 때문에 영역작업에 최적화 돼 있다"면서 "〈원효 전서〉가 영역되면 단기간에 영어권 학자들의 원효 스님 관련 연구가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원효 전서〉 영역 사업에는 뜻있는 단체와의 협력도 기대한다. 연구소 발전에 협력할 수 있는 개인이나 단체의 참여도 바란다"고 제언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17대 · 28대 총무원장, 금산사 조실

태공당 월주 대종사 종단장 봉행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17대 · 28대 총무원장, 금산사 조실
태공당 월주 대종사께서 지난 7월 22일 오전 9시 45분 금산사 만월당에서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열반에 드셨습니다.
이에 7월 26일 영결식과 다비식을 대한불교조계종 종단장으로 엄숙하게 봉행하였습니다.

삼복더위에도 불구하고 추모하는 마음으로 함께해 주신
종정예하, 대덕 스님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님과
각계 기관장님, 불자 및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큰스님께서는 평소 자비심으로 요익중생(饒益衆生)하라고 저희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또 바로 실천에 옮기라고도 하셨습니다. 큰스님 뜻에 어긋나지 않게, 가르침을 따르며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추모의 마음으로 함께 해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불기 2565년 7월 28일
문도일동

태공당 월주 대종사 추모 일정

▪ 초 재	2021년 7월 28일	10시	금산사(김제)
▪ 2 재	2021년 8월 4일	10시	송광사(완주)
▪ 3 재	2021년 8월 11일	10시	실상사(남원)
▪ 4 재	2021년 8월 18일	10시	은적사(군산)
▪ 5 재	2021년 8월 25일	10시	조계사(서울)
▪ 6 재	2021년 9월 1일	10시	영화사(서울)
▪ 49 재	2021년 9월 8일	10시	금산사(김제)

전라북도 김제시 금산면 모악15길 1
대한불교조계종 제17교구 본사 **모악산 금산사**
전화 063) 548~4440~2